

‘3A’ 전략으로 국민차 정조준... “수입차 진입장벽 허물 것”

(More Accessible·More Affordable·More Advanced)

폴크스바겐 미디어데이

대중적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3A 전략 첫 타자 신형 티구안
2022년 ID.4 등 전기차 도입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도 ‘국민차’ 작전을 이어간다. 저렴하고 수준 높은 신차와 서비스 비용 축소를 통해 수입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는 것. 무리하리만치 친환경성을 높인 디젤 엔진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관건이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22일 온라인에서 ‘폴크스바겐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수입차 대중화 전략과 경과, 신차 및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전략은 ‘3A’다. 수입차를 누구나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고(More Accessible),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총 소유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며(More Affordable), 첨단 안전 장비와 편의 사양은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More Advanced)한다는 내용이다.

폴크스바겐은 이를 통해 대중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를 목표로 했다. 폴크스바겐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브



슈테판 크랍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신형 티구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코리아

랜드로 안착시킨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가격 조정이나 신차, 7월 말 신형 티구안부터 새로운 가격 정책을 도입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투아렉과 제타도 낮은 가격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전 모델에 5년/15만km 무상보증과 사고 수리 토탈케어 서비스를 도입하며 유지비도 줄여준다. 업계 최장 수준 무상보증을 표준화하며 수입차 유지비가 비싸다는 인식을 개선한다는 포부다. 소비자에 5회까지 자기부담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고 수리 토탈케어’ 서비스도 이 일환이다.

첨단 기술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첨단 안전 장비와 편의사양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하겠다는 것.

슈테판 크랍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은 “폴크스바겐은 지난 2018년 수입차 시장의 대중화 전략을 제시한 이후 수입차 시장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3A 전략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수입차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수입차의 진입장

벽을 허물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A 전략 첫 타자는 새로운 티구안이다. IQ 라이트와 MIB3, 무선 애플캐비닛 등 첨단 편의 사양을 탑재하고 보증연장과 블랙박스 장착까지 제공하면서도 가격을 4000만원 안팎으로 책정했다.

후추 친환경차 출시 계획도 밝혔다. 2022년부터 ID.4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전기차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차원에서 2025년까지 약 160억 유로를 E-모빌리티와 하이브리드, 디지털화에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티구안이 또 디젤 모델이라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 이미 판매량 70% 이상을 디젤 엔진으로 채운 상황에서 전기차보다 디젤 엔진을 들여온다는 데 대한 반감이다. 폴크스바겐은 아직 전기차도 도입하지 않았다. 주요 브랜드들이 앞다퉈 전기차를 국내에 먼저 내놓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폴크스바겐은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입장이다. 유럽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그 밖에 지역에서는 인프라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새로운 EA288evo 엔진의 친환경성

도 강조했다. 유로7기준을 이미 충족할 만큼 친환경적인 디젤 엔진이라는 설명. SCR 시스템을 2개로 늘리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을 이전 대비 80%나 저감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통계를 보면 폴크스바겐의 주장은 현실과 다소 맞지 않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디젤 모델 판매량은 2만2858대로 전년 동기(3만7257대) 대비 38.6%나 감소했다. 가솔린 차량도 7만5228대로 전년 동기(7만4717대) 0.7% 증가에 그쳤다. 오히려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3만5703대로 전년 동기 197.7% 성장, 디젤차 판매량을 훨씬 넘어섰다.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유럽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전국 전기차 충전소 대수만 7만개소를 넘어선 상태, 유럽에서는 그나마 네덜란드가 비슷한 수준이고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 전기차 충전소는 국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중, 노사 위기극복 한뜻... 단체교섭 타결

조선산업 발전 위한 노사 선언 선포
“갈등 아닌 신뢰·협력으로 힘 모아야”

과거의 ‘수주 절벽’ 후유증과 철강가격 폭등으로 실적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노사간 협력으로 위기 돌파에 나선다.

현대중공업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2일 울산 본사에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선언’ 선포식을 갖고, 조선산업 발전과 회사 재도약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선언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노사는 최근 2년 치 단체교섭도 타결했다.

이번 노사 선언은 장기간의 침체에 빠져있던 조선업이 최근 수주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모처럼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가 갈등이 아닌 신뢰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한데 따른 것이다.

노사 선언은 ▲회사는 구성원이 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2일 울산 본사에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선언’ 선포식을 갖고, 조선산업 재도약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선언했다.

공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의 발전과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협력하고, 생산 현장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노사가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노동자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산업·업종별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선언은 현대중공업 노사관계가 대전환을 맞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조인식도 가졌다.

/양성운 기자 ysw@

SK이노, 역대 최단기 노사 임단협 합의

단협 사상 최고 찬성률 88.5% 기록

SK이노베이션 노사가 2021년도 단체협약(단협) 갱신교섭에서 역대 최단기간인 3주만에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달 16일 노사가 울산에서 단체협약을 위한 첫 미팅을 갖고, 교섭을 시작한지 3주 만에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22일 밝혔다. 단협은 임금협상과 달리 다뤄야 할 안건들이 많아 최소 3~4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에 비춰 협상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이다.

특히 이번 단협은 SK이노베이션 단협 역사상 최고의 투표율인 95.8%와 최고의 찬성률 88.5%를 기록했다. 국내 통상적인 노사관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높은 찬성률이다.



SK이노베이션 2021년 단체협약 조인식. 왼쪽부터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SK에너지 조경목 사장

SK이노베이션은 “노사가 쌓아온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한 결과”라며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세대별, 직무별로 모두 행복이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 양측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현대로템 “지속가능분야 사업 영역 확대”

창립 이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대로템이 수소·로봇 등 지속가능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22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 인사말에서 “현대로템은 부품 공급망 체계와 생산성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진하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와 사회적 불안정을 극

복해 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소, 로봇 등 지속가능 분야로의 신속한 전환을 추진해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날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추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활동과 회사의 주요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서는 ‘창의적 혁신을 통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성장’이라는 지속가능경영 비전을 제시했다. /양성운 기자

LG디스플레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LG디스플레이가 ESG 경영을 향한 의지를 확인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0-202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올해 10번째를 맞은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제품가치 혁신 ▲환경영향 최소화 ▲안전한 일터 ▲임직원 성장 및 행복 ▲지속가능한 공급망 등을 포함, 총 11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과 성과들을 담았다.

/김재용 기자

캐나다 온타리오주 우수과제 선정

LG전자 인공지능(AI) 프로젝트가 캐나다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개발비까지 따냈다.

LG전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선정한 우수과제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약 3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는 토론토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물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프로젝트에서

개발하는 기술이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인 카메라를 비롯해 레이더, 라이다와 같은 센서가 악천후 조건에서 얻은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이다.

특히 도로 표지판, 차선, 보행자 등이 폭설, 폭우, 안개 등으로 인해 가려지거나 흐릿하게 보일 경우 센서들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이를 탑재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